

입양부모 관점에서 본 입양아동의 입양 관련 이슈에 관한 심리·정서적 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한연희*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연구자가 26년 동안 입양하여 양육한 9명의 입양아동의 입양과 관련된 심리·정서적 특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먼저 입양아동은 입양에 대하여 제 2의 탄생이라고 인식하지만, 다시 포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 입양아동에게 친생부모는 마음으로 항상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고 고마운 분들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입양부모에 대해서는 꿈을 키워주고, 책임져주는 분들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입양아동이 입양가정 즉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는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본능적인 극도의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쉽게 경직되거나 표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 입양아동에게 있어서 친생부모는 평생토록 내면에 공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양 전에 아무리 많은 아픔과 결핍이 있었던 아동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믿어주고 지지해 줄 때 회복하는 능력 또한 매우 탁월하다는 사실을 믿어주는 역할이 입양부모가 해야 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입양아동이 가지고 있는 상실과 슬픔, 두려움 등의 문제를 입양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려는 태도보다 스스로 헤쳐나 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입양아동, 입양부모, 친생부모, 입양이슈

논문제출일 : 2015. 11. 15

최종심사일 : 2015. 12. 12

게재확정일 : 2015. 12. 17

* 전 한국입양홍보회 회장, 현 중앙입양원 이사

Corresponding Author : Youn-hee Han, Cheongbaengni-ro 691-31, Beaksa-myeon, Icheon-si, Gyeonggi-do, Korea, 17313, E-mail: doolanno@hanmail.net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국내 입양아동의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아동은 자아·인지·정서·사회성 발달에서 비입양아동과 비교하여 연령 및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연령 및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안재진 외, 2015). 그러나 입양아동들 가운데 상당수는 스트레스적인 입양 전 경험과 이에 수반된 신체, 정서 및 행동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Brodzinsky 외 1998, 안재진 외, 2004). 이들은 입양 전 씻을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가진 아동들로서 강한 애착을 느꼈던 친생모와의 이별, 많은 가정을 전전한 경험, 중요한 것을 잃고도 슬퍼하지 못한 일,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영양실조와 방임, 어른과 신뢰관계를 맺어보지 못하는 등 경험을 하게 된다(Melina R., 1998, 이수연 외, 2009). 이와 같은 상처는 대부분의 연장아동에게서 흔히 발견할 수 있으며, 입양 후 성장·발달과정에 애착장애, 반항장애, 행동장애, 양심의 결여(lack of conscience), 감정을 구별하고 표현하는 능력의 부재 등 다양한 행동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어렸을 때 뚜렷한 상처나 방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후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초기경험이 행동문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행동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변미희 외, 2014 재인용).

국내 입양아동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는 2006년부터 진행된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 시점에 따라 참여 아동수가 차이가 있지만, 총 191명의 아동이 참여하였는데 이 중에서 발달지체 또는 임상범주(준임상집단 포함)로 한 번 이라도 분류된 아동은 총 60명이었다. 2014년에 60명 중에서 연구참여에 동의한 48명의 아동을 사례 조사하였고, 그 결과 정상 15명 (31.3%), 문제행동은 13명 (27.1%), 지적 장애 4명(8.3%), 신체장애와 지적장애 1명(2.1%), ADHD 4명(8.3%), ADHD와 정신질환을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10명(20.8%), ADHD와 신체장애 1명(2.1%)로 나타났다(변미희 외, 201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양아동 중에서 성장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례

들이 있으므로,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입양과 관련된 이슈를 심리·정서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26년 동안 입양하여 양육한 9명의 입양아동의 입양과 관련된 심리·정서적 특성을 제시하여 향후 입양부모의 입양아동 양육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 입양아동의 입양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심리적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입양아동의 입양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정서적 특성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입양아동의 입양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심리·정서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로는 입양인으로 성장한 후에 입양부모가 Sherrie가 2004년에 발행한 ‘입양아동이 바라는 입양부모가 알아야 할 20가지’와 2009년에 발행한 ‘성공적인 입양을 위해 입양부모에게 필요한 20가지’를 참고하여 변미희 등(변미희 외 2015)이 재구성한 연구가 있다. 입양부모의 핵심감정으로 상실, 거부, 죄책감·수치심, 애도, 정체감, 친밀감·관계, 통제·성취 등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변미희 외, 2015).

<표 1> 입양아동의 핵심 감정

핵심 감정	내용
상실	· 나는 입양 전에 심각한 상실로 인해 고통 받았어요. 그러나 입양부모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 나에게 생일은 아마도 매우 힘든 날일지도 모릅니다.

거부	• 나는 입양부모님이 나를 포기할까봐 두려워요. • 나는 입양부모님이 양육하기에 내가 너무 힘든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죄책감 · 수치심	• 나는 내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입양으로 인한 상실 때문에 특별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 내가 나쁜 아이라서 친생부모가 나를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 지독한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입양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애도	• 내가 만일 나의 상실을 충분히 슬퍼하지 못한다면, 입양부모님과 다른 사람들로 부터 받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나의 능력은 숨어 버릴 거 같아요. • 나의 해결되지 않는 슬픔은 입양부모에 대한 분노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 나는 상실을 애도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나의 입양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정체감 : 친생 부모 및 생물학 적 배경 있는 그대로 인정	• 내가 단지 친생부모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 나는 입양부모님이 친생부모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 나는 매우 고통스러울지라도 나에게 대해, 출생과 가족력에 대한 진실을 알기를 원해요. • 나의 의료적 기록을 모두 알지 못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 나는 실제의 나보다 조금 더 완벽하게 나를 표현할지도 몰라요. 나는 숨겨진 나의 한 부분이 밝혀져서, 나의 정체성의 전체를 통합할 수 있도록 입양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 나에게 입양부모님처럼 보이거나 행동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입양부모님이 우리의 다름을 인식하고 축하하기를 바랍니다.
친밀감 · 관계	• 내가 입양부모님에게 속한 자녀가 되게 하세요. 내가 입양부모님을 나 자신으로부터 차단하도록 하지 마세요. • 내가 나의 두려움을 매우 나쁜 방법으로 표현할 때 제발 나와 함께 있고, 지혜롭게 반응해 주세요. • 내가 친생부모 찾기를 결정할지라도 나는 항상 입양부모님이 내 부모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통제 · 성취	• 제발 입양과 관련된 나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세요. 나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 나는 인격적인 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요.

출처: Sherrie, E.(2004). Sherrie, E.(2009). 변미희 외(2015) 재인용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연구자의 입양자녀 9명이며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으며, 첫째 자녀는 친생자이므로 제시하지 않았다. 입양 자녀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입양한 둘째는 현재 32세, 남자이고, 입양당시 시설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입양당시 연령은 7세이며, 특별한 심리·정서적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하였다.

셋째는 현재 24세, 남자로 입양 당시 가족이 해체되어 시설입소 직전에 친모의 노력으로 가정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음악에 재능이 있어 현재 중국 북경에서 대학원 유학 중이다.

넷째는 현재 23세로 셋째와 친형제로 친부로부터 친모를 닮았다는 이유로 학대를 받았으며 유사자폐 증세, 반사회적인 행동이 고등학생 시기까지 심한 상태였으나 미술전공으로 대학진학과 공군 입대 및 제대 후 건강하게 성장하였다.

다섯째는 22세 남자로 13살에 입양되었다가 2년 뒤 파양된 뒤 15살에 왔다. 신체와 시각장애 등 1급장애가 있어서 방황을 심하게 하다가 지금은 장애인고용센터의 도움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여섯째는 18세 남자로 7개월 때 입양되었으며 언어영역의 발달미숙으로 학업에 큰 어려움을 겪어서 고등학교를 중퇴 후 생산직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다.

일곱째는 17세 남자로 11세 때 시설생활 중 학대에 노출되어 일시보호 중 입양을 오게 되었으며 경계성 발달지체 증세가 있으나 불신이 심하여 약물 및 심리치료 등을 하지 못했으며 중학교 때 장기가출로 인해 학업을 한 해 늦췄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나 그만 두고 집에서 쉬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여덟째는 16세 남자로 일곱째와 같은 시설에서 성장하다가 같이 오게 되었으며 반사회적인 행동이 잦아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아홉째는 15세 여자로 7개월 때 입양되었으며 몇 개월 전 버스 안에서 성추행 사건 후 강박증으로 약물과 놀이치료를 받고 있다.

열째는 13세 여자로 영아기에 입양되었다가 파양되어 4세 때 입양되었으며 지적장애 3급, 반응성애착장애가 있으나 5세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지, 학습, 놀이, 음악, 미술치료 등

을 받은 결과 지금은 또래들과 잘 지내고 있으며 특수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특성

형제 순위	연령 (만)	성 별	학력	입양 당시 연령	입양 배경	현직	성장기 진단 여부 및 치료방법			
							시기	진단명 /증상	약물 치료	심리 치료 등
2	32세	남	대중 퇴	7세	시설 아동	태권 도 학원	7~10세	-	-	○
3	24세	남	대 학원 유학	9세	빈곤	대학 원생	-	-	-	-
4	23세	남	대재	8세	빈곤	대학 생	8-12 세	유사 자폐	○	○
5	22세	남	대 중퇴	15세	미혼 모	회사 원	1세	선천성 손기형	-	-
							14세	시각 장애	○	-
6	18세	남	고 중퇴	영아	미혼 모	생산 직	18세	일시적 우울	○	-
7	17세	남	고중 퇴	11세	미혼 모	검정 고시 준비	11세	ADHD	-	-
8	16세	남	중재	10세	미혼 모	학생	완강하게 거부하여 치료를 못하였음			
9	15세	여	중재	영아	미혼 모	학생	15세 ~현재	강박증	○	○
10	13세	여	중재	4세	미혼 모	학생	5세 ~현재	지적장애 3급	○	○
							6세	반응성 애착장애		○

첫째 자녀는 친생자임

심리치료, 놀이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등을 포함함

3, 4 번은 친생부모가 같은 형제관계임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연구자가 2001년부터 한국입양홍보회 웹사이트 일기마을에 작성한 일기, 연구자 가족과 관련된 신문기사 및 방송자료, 연구자가 언론사, 입양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요청받아 작성한 원고 등이다. 구체적인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분석 자료의 유형 및 출처

유형	기간	출처
일기	2001. 10 ~ 2014. 12	한국입양홍보회
	2013 . 3 - 2015년 현재	카카오토리
신문기사	2013년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14회 연재
방송자료	2000 .5, 2011. 11	KBS 인간극장 등 다수
	2011. 8 - 2015. 5	KBS-TV 아침마당
	2005. 12 - 2006. 11	CBS-TV 행복토크 고정 출연
	2011. 2.	KBS-2TV 여유만만
	2015. 3	SBS 스타킹
발표 원고	2004년 - 2006년	웅진 엄마는 생각쟁이 연재
	2007 - 2009	과천 소식지 연재
저서	2003년	하나네 집으로 놀러오세요.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텍스트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료도출과정을 체계화하는 기법인 내용분석(content-analysis)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 본인이 양육한 입양아동을 분석하였으므로, 주관적인 분석이 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하여 객관적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입양 관련 연구를 10년 이상 진행한 아동복지학전공 교수 1인과 사례연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1인이 연구자가 분석한 자료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IV. 연구결과

1. 입양 아동의 입양에 대한 인식

1) 제 2의 탄생

입양아동은 입양 후에 입양 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므로, 입양을 제 2의 탄생이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표현하였다.

내가 만약 입양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노숙자나 폐인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해. 입양은 나한테 제 2의 탄생인 셈이야. 나는 마치 아주 다른 두 개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사례 3>

친모가 나를 입양 보내려고 한 의도를 알 것 같아. 나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것 같은 아빠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 일거야. 입양이 아니면 아빠 없이 평생 살아야 하는 거잖아. 그런 건 상상하기도 싫어.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아빠가 꼭 있어야 돼.<사례 9>

나는 크면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자기 딸이 태어나도 책임지지 못하고 도망치는 남자는 싫어. 나도 결혼하면 가슴이 뗄 때까지 입양해서 키울 거야. 내가 만약 입양이 되지 않았다면 시설에서 컸을 텐데 정말 슬펐을 것 같아. 아마 엉망으로 망가졌을지도 몰라.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좋을지도 모르고 바보같이 놀지 않았을까? <사례 10>

2) 불안과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기

입양아동은 입양 후에 입양부모가 자신을 떠나거나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종종 표현하였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후 생애 처음으로 아홉 번째 생일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어. 생일날 뭘 하고 싶냐? 물어 봐서 학교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했지. 당일 날 많은 친구들이 생일 선물을 들고 찾아왔는데 음식은 잔뜩 차려져 있는데 엄마가 없어서 다 차려놓고 도망간 줄 알고 가슴이 철렁

했지 뭐야. 잠깐 나갔다 오신 거였는데... <사례 4>

혹시라도 잘못해서 다시 시설로 갈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든 게 두려웠어. 혹시 엄마한테 말했다가 거절 당할까봐 돈 달라는 말을 죽어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훔쳤지. 그게 더 편하니까.
<사례 2>

3) 나의 뿌리인 친생가족 찾기

입양아동은 자신과 닮은 누군가를 만나면 혹시 나와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닐까 생각하게 하면서, 자신의 뿌리인 친생가족 찾기를 지속하게 된다.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뒤에서 보니까 나랑 체구가 비슷한 아저씨가 걸어가는데 가슴이 철렁 하는 거야. 내 체구가 일반적이진 않잖아. 혹시나 해서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재빨리 앞질러 가서 뒤로 돌아 천천히 걸으면서 그 사람 얼굴을 봤어. 역시나 아니더라고. <사례 2>

우리 학교에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생각 했는지 알아? 나랑 혹시 쌍둥이 아니면 같은 엄마 아닐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사례10>

엄마, 학교에 친구들 부모님이 오셨는데 친구들이랑 똑같이 닮은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되면서도 엄청 신기하더라. 나는 누구 닮았을까? 아빠까 엄마까? 거울 볼 때마다 궁금해서 미치겠어. <사례 10>

2.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에 대한 감정

1) 친생부모와 함께 살아가기 : 그리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출생과 같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입양아동들의 뇌리에는 존재하지만 만져보거나 볼 수 없는 유령 같은 존재인 친생부모가 살고 있다. 가까이에서 함께 하는 부모는 밀어내고 유령 같은 존재를 선물처럼 포장한 아이들을 바라보는 기분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다. 그러나 이 부분은 모든 걸 헌신하며 보살펴준 입양부모라 할지라

도 반드시 존중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사례 5>의 소원은 딱 한가지다. 친엄마랑 함께 사는 것이다. 아빠가 “그렇게나 엄마랑 함께 살고 싶냐?” 라는 질문에 충알처럼 빠르고 우렁차게 대답을 했다. “네!” <사례 5>

나는 꿈속에서 늘 그리운 엄마를 만나요. 꿈에서 깨면 잠시 멍하도록 슬플 만큼, 항상 웃고 즐겁게 놀지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함께 살고 싶은걸 꼭꼭 참고 사는 게 아니라 밤마다 엄마랑 살고 있죠. <사례 5>

부모님이 몹시 보고 싶을 때 우리 형제는 엄마가 두고 가신 옛날 사진들을 꺼내 봅니다.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해 얼굴을 잊어버릴까봐 사진 속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옛날 일들도 사진을 보면서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진을 보고 있으면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얼핏 스쳐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은 우리 곁을 떠난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탁엄마를 보면서 마음을 달랠니다. <사례 3>

사례7은 아홉 살 때 입양기관을 통해 친생모를 만났다. 정작 만났을 땐 낯설어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다. “엄마, 나 낳은 진짜 엄마 나랑 둘이 있다가 내가 여기 왔으면 혼자 있겠네? 엄마, 우리 진짜 엄마 여기 와서 같이 살면 어때? 그렇게 하자.” 입양부모가 “그 엄마 혼자 살지 않아. 결혼 했어.” 라고 답한다. “그럼 그 집에 가보고 싶어. 어느 동네야? 엄마 알지? 내 동생들이 있을까? 집에 강아지 있을까? 가보고 싶다.” <사례 7>

고양이가 새끼를 낳자 산바라지를 해 주려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사례 10>이 출산기념으로 대형 애견마트에 들러 주인이 추천해 주는 통조림을 꼼꼼하게 고르고 화장실을 쾌적하게 해 준다면 소독된 모래를 사왔다. 젓 잘 나오라고 분유 타서 통조림이랑 주니까 어미 고양이가 아주 맛있게 먹은 후 새끼들이 수유를 하도록 편안하게 몸을 내준다. “엄마, 나 낳아준 엄마 나 보고 싶을까?” <사례 10>

사례2는 2000년 5월, 인간극장에 출연한 후 많은 인터뷰에 응했으나 반복되는 기자들의 질문에 회의를 느낀 후 인터뷰를 일체 하지 않는다. “엄마, 사람들 정말 이상하지 않아? 다들 짠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똑같이 하겠어?” “내가 기자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낳아주신 부모님을 보고 싶냐. 고 물어보셨

습니까? 학창시절에 자기를 괴롭히던 선배도 시간이 지나면 보고 싶은 법인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더구나 그 당시 키우지 못할 사정은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며 사는지, 나는 두 분 중 누구를 닮았는지 알고 싶지 않겠어요? <사례 2>

2) 친생부모에 대한 환상

입양아동은 친생부모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친생부모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존재이며, 자신을 무척이나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며, 자신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사례 8>이 중1 때 가출 후 친구들과 수영장 탈의실에서 지갑을 훔쳐서 사용하다가 CCTV에 찍혀 경찰서에 잡혀있다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자신의 결백을 믿어달라면서 진심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난 훔치지 않았어요. 진짜라고요. 며칠 전 우연히 우리 친엄마를 만났어요. 나를 찾고 있었대요. 진짜예요. 돈도 친엄마가 줬어요. 내가 놀고 싶어서 따라가지 않은 것뿐이에요.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오라고 했다니깐요.” <사례 8>

<사례 10>의 친구 엄마는 친구와 19살 차이가 나서 첫째 오빠와 동갑이라는 사실을 알던 날, 몹시 호들갑스런 상태로 조잘댔다. <사례 10>은 양모와 45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멋을 내고 싶어 하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대차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내 친엄마는 몇 살쯤 되었을까? 머리는 길까 짧을까? 긴 머리에 짧은 언니 같은 사람이겠지? 세대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말이 잘 통할 수도 있겠네. 친구 같은 엄마와 딸이면 정말 좋을 텐데. 내가 꾸미고 멋 내는 걸 잘 이해해줄거야. 나는 일찍 결혼해서 아기도 일찍 낳을 거야. 그래야 친구처럼 재밌게 살 수 있으니까. <사례 10>

<사례 5>를 깨우려면 꾸물거려서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데 어느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놔다. 꿈 속에서 엄마는 내게 공부해라, 일어나라, 듣기 싫은 간섭은 없어요. 오직 오색찬란한 기쁨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은 만져볼 수 없는 유령 같은 존재지만 어느 날 불쑥 근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빛으로 말해 주겠죠. 우리 엄마도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책임지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현관문이 열리면 환한 얼굴로 들어설 것만 같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꼭 같이 살 거예요. <사례 5>

3) 친생부모에 대한 고마움

입양아동은 친생부모가 임신 중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출산한 점과 시설에서 성장하지 않도록 입양을 선택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례2가 입양기관의 소식지 인터뷰에서 낳아주신 부모님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할 것 같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 분들을 만나면 낳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나 잘살고 있으니깐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례 2>

기자가 친부모님에 대한 질문을 하자 사례4는 비록 직접 키우지는 못했지만 시설에서 성장한 친엄마가 우리들만큼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크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누구보다 우리가 잘 자라기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죠. <사례 4>

<사례 9>는 10살 어버이날 카드에 이런 감사의 글을 썼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많이 놀랐을 텐데 낙태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낳아주시고 입양기관에 맡겨주셔서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한번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맙다는 뜻으로 큰 절을 드려야 하니까요.” <사례 9>

나 낳아주신 분이 고마운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나 버릴 수도 있었잖아. 뉴스 못 봤어? 애들 버리잖아. 그런데 나를 입양기관에 맡겨서 엄마 아빠 만나게 해줬으니깐 고맙지. <사례 10>

“우리 친엄마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겠쥬?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나 잘사는 거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례 6>

3. 입양아동의 입양부모에 대한 감정

1)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주는 분들

입양아동은 입양부모가 자신의 작은 재능이라도 발견해서 꿈을 키워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분들이라고 믿고 있었다.

<사례 4>는 유사자폐를 오랫동안 앓아서 매우 무기력한 상태로 살았는데 사촌 매형이랑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말썽만 피니까 꿈같은 건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낙서하는 걸 유심히 보셨다가 그림을 그리도록 학원에 보내주시고 그쪽에 재능이 있다는 걸 나 스스로가 느꼈을 때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어요.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자신 있어요. <사례 4>

언젠가 시설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집에 놀러왔는데 식구들이 많으니까 시설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에 이렇게 설명했다. 애들아, 시설이나 여기나 거기가 거기야. 나도 보육원에서 14년을 살았거든. 여기 온지 얼마 되지 않았어. 으음, 여기와 보육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서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야. 뭐든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줘 그것만 기억해 이제 알겠지? <사례 5>

2015년 SBS-TV 스타킹에 출연하여 악기 연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만약 시설에서 자랐다면 지금처럼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했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사례 3>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난 후 생산직으로 갈 때 주변 사람들은 매우 의아하게 바라봤다. 혹시 친자가 아니어서 부모가 경솔하게 보내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눈치였다. 나는 생산직이 체질인가 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칭찬해주시거든요. 여기엔 나 같은 젊은 청년은 한 명도 없어서 사람들이 나더러 외국인이나고 물어봐요. 엄마,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친구가 여기 오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말씀 드렸다가 엄청 혼났대요. <사례 6>

2) 책임지시는 분들

입양아동은 입양부모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례 2>가 고1때 친구들과 놀러나갔다가 패싸움이 벌어져서 상대방의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냈다. 그때 경찰서에 찾아갔을 때 일을 몇 년 후 대학 진학 후 술을 먹은 후 취중에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사고 쳤던 일 생각나세요? 경찰서에 있을 때 아빠가 다가와서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아빠가 다 책임질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고

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사례 2>

내가 중1때 생전 보지도 못한 비싼 악기(비파)를 사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선뜻 사주셨잖아요. 남들은 남자애가 그걸 해서 나중에 뭐에 쓸 거냐고 말렸지만 엄마는 나한테 악기를 사주는 걸로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주고 싶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레슨을 시켜 주시고 언제나 지켜봐주신 거 지나고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례 3>

우리 아빠 너무 불쌍해. 자식이 많으니까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잖아. 남들 같으면 실 나인데. 처자식이 뭔지, 자식이 이렇게 많지만 앓아도 편하게 사셨을 텐데.. <사례 9>

<사례 4>는 뒤늦게 약시가 심하다는 진단을 받아 국립서울맹학교 고등부에 진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빈번하게 말썽을 일으켜서 학교에 불러 다녔는데 양모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전맹인 선배 중에서 안마를 잘하는 안마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소개했다. “우리 엄마예요. 내가 철이 없어서 너무 많이 속을 썩었나 봐요.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맹학교에도 가지 못했을 텐데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말썽만 폈으니, 형! 우리 엄마 도와주세요.” <사례 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연구자가 26년 동안 입양하여 양육한 9명의 입양아동의 입양과 관련된 심리·정서적 특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먼저 입양아동은 입양 및 입양인에 대한 감정으로 영아기에 입양된 아동에게는 발견되지 않으나 연령이 있어서 입양된 아동에게는 동일하게 거절당하거나 다시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또한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후에도 친생부모의 생사에 관한 불안과 만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인식하면서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찾고자 함을 발견하였다. 두 번째로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에 대한 감정은 평소에는 거의 표현하지 않아도 항상 함

게 살아가는 존재이며, 낙태, 유기의 위험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준 친모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어 하며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입양아동의 입양부모에 대한 감정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려고 노력하는 존재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지하며 응원해 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가장 큰 안도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입양실천 현장 및 입양부모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먼저 입양아동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는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본능적인 극도의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쉽게 경직되거나 표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이 웃거나 명랑하다고 해서 공포감이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선불리 행동수정을 서두를 경우 오히려 적응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두 번째 입양아동에게 있어서 친생부모는 평생토록 내면에 공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생일 날, 동물이 새끼를 낳았을 때, 매일 아침 거울을 바라볼 때 불쑥 떠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친생부모다. 입양부모는 친생부모의 대체물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보호자임을 인식하여 친생부모와 심리적으로 경쟁관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때 입양아동이 편안하게 친생부모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입양부모에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세 번째 입양 전에 아무리 많은 아픔과 결핍이 있었던 아동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믿어주고 지지해 줄 때 회복하는 능력 또한 매우 탁월하다는 사실을 믿어주는 역할이 입양부모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직관력이 발달되어 있어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의 시선을 감지한다. 더디다고 느낄 수 있으나 성인이 될 때 즈음이 되면 다 자기 몫을 해낸다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설사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은 최상의 부모로 인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양은 출산만 생략된 자녀를 얻는 방법이 아니다. 입양아동이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인 배경과 출생 배경, 타고난 기질 등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입양아동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려고 노력할 때 더불어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므로 성장과정보다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뿌듯함이 더욱 크다. 따라서 입양아동이 가지고 있는 상실과 슬픔, 두려움 등의 문제를 입양부모가 대신 해결해주려는 태도보다 스스로 헤쳐나 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관계를 훼손하는 말이나 행동은 삼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 변미희·안재진·권지성·최운선(2014).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 9차년도 조사 -발달지체 및 임상범주 입양아동에 대한 사례연구-*. 서울: 중앙입양원
- 변미희·안재진·강지현(2015). *예비입양부모 교육 교재 개발 연구*. 서울: 중앙입양원
- 안재진· 권지성· 변미희· 최운선(2015).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2015년 5차 양적 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중앙입양원
- Brodzinsky, D. M., Smith, D. W. & Brodzinsky, A. B.(1998). *입양아동의 적응*. 안재진 역(2004). 서울: 홀트아동복지회
- Melina, L. R.(1998). *입양아 부모되기*. 이수연 역(2009). 서울: 궁리
- Sherrie, E.(2004). *20 Things adopted kids wish their adoptive parent knew*. New York: Delta Trade Paperbacks .
- Sherrie, E.(2009). *20 Things adoptive parents need to succeed*. New York: Delta Trade Paperbacks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about the Adoption Issues of Adopted Children

Youn-Hee 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ive practical help in raising adopted children for adoptive parents. Researcher have adopted and raised nine adopted children for 26 year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adopted children recognized that adoption was new life, but they has had anxiety and fear. The second, adopted children has lived in their heart with birth parents and appreciated them. Finally, adoptive parents gave a dream and responsibility for adopted childre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adoptive parents have to have a big patience until stable emotion of adopted children after adoption. The second, adoptive parents should recognize the fact that birth parents have been coexisted on the inner surface of adopted children lifetime. The third, adoptive parent should believe that the adopted children could recover their pain and sadness from birth parents, when they have been given supported by their new parents. Finally, adoptive parents should help adopted children who they have tried to solve their grief and loss by themselves.

Key Words : adopted children, adoptive parents, birth parents, issue of adoption

* President(2000 ~ 2006, 2009 ~2012), Misson to Promote Adoption in Korea
Member of Board of Directors(2012 ~ 2015), Kora Adoption Services